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제 역할 하고 있나?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들어서는 것을 환영했지만 현재 서산출장소의 미온적인 행태에 일부 근로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원 5인 이상 근무하는 마트 등의 근로자들은 서산출장소가 없을 때나 현재나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경우 노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방법 등에 대한 홍보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이를 지키고 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미흡한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사업장 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자 A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인근지역에 위치한 마트 등에 들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아무나 붙잡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1년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등은 제대로 지켜 작성하고 있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현재 관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서산시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혜택에 대해 피부로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문구라도 만들어 사업장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 B는 “근로계약서 상 상호 협의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근

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된 설과 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도 일반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업주가 어떻게 해서라도 근로자의 휴일을 빼앗고, 더 많은 돈을 챙기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고용노동부만큼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진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소장의 인사말을 통해 서산시, 태안군을 관할하는 일선 고용노동 행정기관으로서 이 지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의 노동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 바른말만 있으나 우리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소장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2019년 6월 서산시 쌍언남1로 37, 3층에 개소했다.

/기금현 기자

‘포스코’ 대전 중구 목동 3구역, 공사장 오·폐수 배출 의혹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95번지 일대의 목동3구역을 재개발하는 ‘목동더샵 리슈빌’ 아파트 포스코 공사현장의 오·폐수 처리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은 각종 공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것은 물론 분진·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안전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 시키

는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시와 중구 주민들에 따르면 목동3구역을 재개발하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은 공사기간 내 유출된 시멘트 침전수 상당량을 인근 하수도에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TN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구청인 중구청의 무관심 속에 현장에서 아직 중인 세륜 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

로 흘러내려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대전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시공사인 포스코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이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 먼지는 대기 중으로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모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현장을 둘러본 중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물(폐수)은 하수구로 들어가도 집수장이 있어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태안군, ‘광개토 대사업’ 성과 가시화

‘이원-대산 연결, ‘고속도로 건설’ 등 지리적 접근성 위한 도로망 확충 구체화

민선7기 태안군이 추진 중인 ‘광개토 대사업’의 핵심인 도로망 확충 사업이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발전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광개토 대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각종 도로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원-대산 연결 △고속도로 건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이 다수 확정 또는 시행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광개토 대사업은 가세로 군수의 대표 공약으로 군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군은 가운수가 직접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 이원-대산 연결

이원-대산 연결은 가로림만을 사이에 둔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 간 5.6km의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국도38호 연장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83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정부가 국도38호선 기점을 기존 대산에서 이원으로 연장하는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를 발표해 이원-대산 연결이 가시화됐으며, 군은 대정부 활동 및 대산 공약과 추진 등을 통해 건설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과 대산이 연결될 경우 양 구간 간 거리가 기존 73km에서 5.6km로 크게 줄어져 90분 이상의 이동시간 단축이 예상되며, 해상교량 완공 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더불어 훌륭한 관광 명소로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속도로 건설

태안군은 충남도 내 고속도로가 많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로, 지난 9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태안고속도로’가 반영됨에 따라 태안-서산 간 약 25km 구간을 1조 1천억 원의 예산으로 우선 연결한

후 추후 세종까지 최종 연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 서해안의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해지고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의 진입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서·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 향상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태안-근흥(영축리) 구간 14.1km 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국지도96호선 확충 사업은 총 9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설계에 들어가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방과학연구소를 출입하는 대형 군(軍) 장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면도 종단 도로인 국도77호선 장기-고남 구간 확충 사업의 경우 올해 말 보령 해저터널 개통 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양방향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16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돼 있다. 올해 안에 설

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발주를 목표로 군에서도 대정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태안-원북 간 지방도603호선 확포장 사업은 태안화력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충남도에서 46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며,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상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구간은 평소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겼던 곳으로, 향후 이원-대산 연결 사업과 더불어 북부권의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중장기적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는 등 주요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찾아 태안의 소외된 교통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돼 최종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청양군, 스쿨존 교통안전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일 청양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청 공무원들과 청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청양초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도로 건널 때 뛰지 않기 ▲등하교 시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반드시 횡단보도 이용하기 ▲좌우 살피며 길 건너기 등 안전 보행 요령을 안내하고 주민들에게는 과속운전 하지 않기, 신호위반

하지 않기, 불법유턴 하지 않기, 난폭운전 하지 않기, 중앙선 침범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군은 교통시설 보강과 안전 점검 정례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과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며 “모든 군민이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광주광역시, 외국인 이용 음식점 불법행위 8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적발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외국인 이용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입자 명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차단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중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는 등 위생 취약 음식점 65곳을 선별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조리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곳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 1곳 ▲시설

물 멸실 1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및 무신고 식육판매업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기간 영업주에게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신고 수입식품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식재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사 활동을 강화해 방역수칙 이행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기자

충남청소년진흥원,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업무협약 체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은 4일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상호협력적 연계를 통해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네트워킹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훈련,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운영, 전문인력양성, 현장실습, 취업알선, 인턴십 등의 인적자원을 교류와 함께 양 기관의 사업에 대한 홍보·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 내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홍보 및 협조해 도

내 청소년들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특히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인재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현장실습에서 인턴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박영의 원장은 “도내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지역인재가 충남의 미래를 밝히고 도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는 든든한 지원자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금현 기자

충청북도, ‘미래차산업’육성 맞손

‘전기 다목적자동차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는 지난 3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음성군,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북분원 설립과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북도 이시종 지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 음성군 조병국 군수, 충북테크노파크 송재민 원장, 임호선 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과 기아㈜, 현대에버다임 등 자동차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충청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음성군, 충북테크노파크가 화물, 소방, 의료 등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자동차를 친환경 등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기 다목적자동차 개발 정책 및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전기 다목적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내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 설립 및 기업 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는 그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온 수송기계부품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1990년에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관련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도내 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충북도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3년 음성에 전기 다목적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 다목적자동차의 차량별 맞춤형 플랫폼 특화기술 개발 및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에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충북 음성군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 설립을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충북이 미래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서산시, 나눔의바람 ‘따뜻’

서산자원봉사센터에 나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사(지사장 이재중)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패딩 조끼 100벌(210만원 상당) 전달에 이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서산지부(지부장 박현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꾸러미 200박스(1천만원 상당)가 전달돼 겨울을 앞두고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해 보낼 수 있게 됐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활성화와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사랑



의 꾸러미(김, 감태, 배어포, 표고버섯, 흑미, 참쌀)는 15개 읍·동 거점캠프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금현 기자